

P-9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악전치 결손부의 심미적 수복

홍정아, 허 익, 이만섭, 권영혁, 박준봉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임플란트를 이용한 단일치아의 수복은 성공적이고 예견성이 높지만 술전 주의깊은 치료 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삼차원적인 위치설정, 치조골 용적의 확보, 치은외형의 형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다양한 경조직 및 연조직의 증대술식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환자의 심미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잔존 치조제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철물이 가장 심미성을 이룰수 있는 위치에 심는 prosthetically-driven position에 implant가 식립되어야 한다.

임플란트의 위치와 식립각도는 수복물의 심미성과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의 결정은 치조골의 양과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악전치에서는 순측골 판 치조제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발치후에 골흡수 및 지지골의 상실로 인해 구개측 및 치근단측으로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prosthetically-driven implant installation에 부족한 치조제를 야기시킨다.

본 증례에서는 발치후 붕괴된 치조제의 수평적 증대를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단계적인 osteotome을 계획하였다. 시술도중 치조제의 협소함으로 인해 순측 피질골이 파절되었기 때문에 이부위에 차폐막을 위치시켜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증대된 치조제에 주변 치아 및 연조직과 조화를 이루는 삼차원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2차 수술후 치유기간동안 임시보철물을 이용한 유도치은형성 (Guided gum formation)을 통해 치간유두를 형성하여 환자가 만족할 만한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다.